

# 生活韓服의 디자인 現況과 高級化 方案 研究

양정은 · 유송옥\*

경문대학 패션디자인과 강사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Reformed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nd a Scheme for High Quality

Chung-Eun Yang · Song-Ok Ryu\*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Kyungmoon Colleg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 ABSTRACT

The first introduction of reformed Korean traditional clothing was started in the age of civilization and until liberation from imperialism it was made a reformation in faculty from Korean traditional clothing. And by 1980s western style costume took lead but after Asian Game in 1986 and Seoul Olympic in 1988 Korean traditional beauty was added to costume and there were various attempt to produce truly reformed Korean traditional clothing.

The present condition of reformed Korean traditional clothing in 1990s are like this:

- 1) Most of reformed Korean traditional clothing shops could not fractionalize customer. So it needs to subdivide and specialize customer and investment to improvement of design.
- 2) A large percentage of reformed Korean traditional clothing is ordinary dresses. So it should develop various sorts and color, design and textile and be in harmony with international trend.
- 3) Most of shops handled a coordinate goods like a bag and shoes.
- 4) In the investigation customers they wanted various colors, high quality in design, logical price and a periodical sale.

So four pieces of the reformed Korean traditional costumes were designed and produced based on the present condition.

Key Words : Reformed Korean Traditional Clothing (생활한복의 현황 조사)

### I. 序 論

韓民族과 歷史를 같이 해 온 韓服은 우리나라 歷

史와 함께 오랜 세월동안 發展되어 온 우리민족 고유의 服飾이다. 上古時代로부터 近代 初期까지 變化하는 歷史, 社會, 文化的 背景과 生活樣式에 따라

우리의 韓服도 多樣하고 獨特한 樣式으로 發전되어 왔다.

이러한 發展過程을 거치면서 社會全般에의 고유한 傳統性을 고수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1876년 丙子修護條約 이후에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영향을 주고받았던 東洋文化圈과의 접촉과는 相異한 西洋文化와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그것도 自發的인 수용이라기 보다는 外勢의 강제적 개입에 의한 소극적 門戶開放의 형식을 통하여 外國文物과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服飾에 있어서도 그 이후에는 日帝殖民治下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여과되지 않은 서양의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민족 스스로 변화와 발전의 주체가 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우리의 傳統服飾인 韓服은 活動上의 불편함을 이유로 形態面에서만의改良을 추구하거나,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진 儀禮用服飾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解放以後부터 1970년대까지는 빠른 사회변화에 발 맞춘 洋裝의 급격한 보급증가로 인해改良된 韩服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오다가 1980년대 이후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韩服 고유의 아름다움을 유지시키면서, 機能性과活動性을 補完한 生活韓服을 보급하고 홍보하려는 여러 단체와 패션계의 노력으로 韩服의 現代化作業이 시작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패션경향 중 하나인 에스닉(Ethnic) 스타일이 중요한 패션테마로 부각되면서 이제까지 서양중심이었던 패션의 흐름도 多樣한 民族과 제3의 文化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부터 한국적 디자인의 세계진출이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상업적인側面에서까지 發전하게 되었다.

더구나 1996년 12월 4일 文化觀光部의 '韓服입니다'의 제정은 국민모두의 韩服에 대한 관심을 增大시켜 우리의 傳統服飾活性化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다. 生活韓服이 소비자에게 선보이던 초창기에는 機能性을 중시한 勞動服의 概念이 강하였던 관계로 '머슴복', '國籍不明의 옷'이라는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문제의克服을 위하여 學界와 業體들의 다양한 노력이 이

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生活韓服에 관련된 先行研究들을 살펴보면 韓國傳統服飾의 改良의側面이 文獻的 考察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나, 生活韓服市場의 規模와 流通 및 소비자 중심의 요구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데 반해 본研究의 목적은 傳統服의 日常服化, 디자인의 高級化, 世界化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生活韓服 디자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와 동시에 그 문제점을 補完하고자 한다.

이러한 研究 목적을 위해 본考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研究하고자 한다.

첫째, 生活韓服 形成의 社會·文化的 背景을 時代別로 文獻資料 中心으로 考察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현재 국내 生活韓服 業界의 現況과 디자인 現況把握을 위하여 서울소재 生活韓服 專門業體 60곳을 방문조사하여, 99년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生活韓服 디자인들이 복식의 구성 요소, 즉 선, 실루엣, 디테일, 트리밍, 소재, 문양, 색채 등과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이루어졌는가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政體性을 확립하고 世界市場에서 韩服의 美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韩服의 새로운 代案이 될 수 있는 生活韓服의 디자인 현황과 고급화방안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實用化 하는데 그 意義를 두고자 한다.

## II. 生活韓服의 形成 背景

### 1. 生活韓服의 概念

生活韓服은 1980년대부터 本格的으로 大衆에게 注目받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日常服의 한 對案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우리민족의 높은 審美眼의 典型인 韩服이 불편하고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외면당해 왔던 아쉬움을 극복하고 韩服을 日常服으로 정착시키고자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韓服입니다'

날'로 지정하는 등 現代人 들이 韓服에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社會的인 背景 속에서 生活韓服에 대한 觀心은 儀式 있는 모임이 主體가 되어서 傳統服飾을 活動性과 現代的 感覺을 加味한 生活韓服으로 발전시켜 왔다<sup>1)</sup>.

이러한 生活韓服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이 많지는 않으나, 그 연구들을 살펴보면 改良韓服이나 變形韓服, 實用韓服 등의 용어가 生活韓服과 함께 混用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生活韓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生活韓服이라는 용어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概念에는 다소 見解差가 나타나고 있다<sup>2)</sup>.

開化期 以後 傳統韓服의 簡素化의 概念으로 시작한 改良韓服은 해방 이후 양복의 본격적 수용에 밀려 부분적 개량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改良韓服이나 生活韓服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겠으나 '改良'이라는 단어에서 韓服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느껴지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生活韓服이라는 호칭으로 정착되어가는 추세이다.<sup>3)</sup>

本考에서는 生活韓服의 개념을 改良韓服, 變形韓服, 實用韓服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 '韓國의 傳統美를 유지하면서 活動性을 補完하는 동시에 現代的 感覺을 살린 복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生活韓服의 도입시기 및 변천

본考에서는 生活韓服의 뿌리가 改化期 以後 (1884~1945), 歐美勢力의 東洋進出에 따른 朝鮮의 門戶開放에서 시작되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生活韓服의 도입 및 變遷을 두 시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시기는 改化期부터 解放前까지의 시기로 改良의 의미가 단순히 機能的 次元에서의 改良만을 도모하던 時機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解放以後부터 1999년 현재까지로,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중반까지는 韩服과 洋服이 구분되어 공존하면서도 일방적으로 西歐服飾이 주도했던 시기였고,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이후부터는 西歐服飾이 주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적인 전통의 미가 재인식되어 기능상의 改良만이 아닌

審美的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진정한 의미의 생활韓服으로 자리잡게 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 1) 開化期부터 解放前까지의 改良韓服(1884~1945)

朝鮮은 鎮國政策을 시행 하던 대원군이 집권 10년 만에 물러나고 1876년 丙子修護條約을 맺음으로써 개항하였고, 개항 초 日本에 紳士遊覽團과 清에 計議團을 파견하여 서양문화의 도입을 서둘렀다.

1884년에는 甲申衣制改革을 실시하여 의복제도를 간편하게 실용적으로 바꾸었다.

1894년에는 甲午更張을 실시하여 근대적인 정치·사회기구를 설립하였고 封建의 사회인습을 타파하였다. 또한 1895년에 실시된 斷髮令과 官服, 警務官服의 洋服着用令으로 인하여 수천 년간 입어온 韩服 대신 洋服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 A. 男子服飾

급변하는 시대상과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傳統服飾인 韩服을 官服 및 私服에서 실용적으로 변화시켰다. 1895년 강제적인 斷髮令이 실시되었고 高宗이 洋服을 착용하였으며, 일반인중에서도 상류층에서는 洋服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일반 庶民들은 전통 바지저고리에 검은 두루마기를 착용하였고, 斷髮令 이전에는 조선후기에 비해 양태가 좁은 것을 썼고 이후에는 서구의 中折帽을 썼다.

이 당시 관리들의 기록사진을 보면 갓에 窄袖袍의 차림이거나 窄袖袍위에 戰服을 입고 絲帶를 매고 있어 조선후기에 비해 변화된 衣冠制度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서광범은 戰服에 끈 대신 단추를 달아 입음으로써 改良韓服의 선두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韩服과 洋服의 결충식 개량방법은 조끼를 위시하여 여러 服飾에 공용되었다.

官服에 있어서는 1884년 (甲申衣制改革: 1884년 고종 21년 5월 24일)에 따라 기존의 衣冠制度를 간소하게 고치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종전까지 내려오던 團領의 여러 가지 色을 검은색 한가지인 黑團領으로 통일하게 하였고 形態는 종전까지의 廣袖를 없애고 窄袖를 입도록 하여 활동의 간편을 피하는 실용성을 강조하였다<sup>4)</sup>.

軍警服도 1881년에 새로 조직된 신식군대인 別技軍은 길이가 긴 동다리와 戰服으로 구성된 舊識軍人과는 달리 褙子의 깃과 類似한 깃모양에 서양식 단추로 여밈을 한 짧은 개량저고리에 폭이 좁은 바지차림으로 허리에는 帶를 두르고 舊式軍人の 戰笠 보다 좁은 테의 모자를 쓰고 어깨에는 총을 매어 비록 韓服이지만 전체적인 모양이나 구성이 洋服으로 된 軍服과 類似해 洋服으로 된 軍服을 着用하기 前의 過渡期的 形態를 보여주고 있다<sup>5)</sup>.

일반 庶民服에 있어서는 軍·官服처럼 빨리 洋服化되지 못하여 전보다 간단한 형태로 개량되거나 洋服의 品目이 韓服과 혼용되기도 하였으나 대개의 경우 재래의 한복이 그대로 착용되었다.

조선후기에 비해 黑笠의 양태가 크게 줄고 衫 역시 소매와 몸통이 크게 줄었다<sup>6)</sup>.

조끼는 韓服의 線을 살리고 洋服의 실용성을 가미한 韓·洋服 절충의 改良上衣인데, 前開合衽形이며 소매가 없고 앞길에 주머니를 달아 소지품을 넣고 다닐 수 있게 만든 편리한 옷으로 한복식의 길에 암홀(arm hole)을 曲線으로 파 양복식의 어깨선을 나타내고 있다<sup>7)</sup>.

#### B. 女子服飾

1885년 이후 新教育의 실시, 新生活運動 등 특히, 단발운동의 전개는 開化를 본 궤도에 오르게 하였고, 이 시기 전반에 걸친 서구문물의 유입과 기독교의 포교활동을 비롯한 정치, 사회적 변화는 자연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衣, 食, 住 등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8)</sup>.

1910년 韓日合邦의 제결로 한국의 國權은 완전히 상실되었으나 3.1운동을 계기로 여성운동은 문화, 사회, 신앙활동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1930년대에 이르러서 여성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문학, 예술, 교육 등 각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다<sup>9)</sup>.

이러한 가운데 여성사회는 身分階級이 몰락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 외부출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더욱이 기독교의 전래로 여성들은 개화사상에 눈뜨게 되어 서양의 복의 편리함을 보고 그 옷을 모방하기 시작했다<sup>10)</sup>.

차츰 개화에 눈뜬 新女性들의 近代教育運動에 동

참하였는데, 근대학교는 사상면에서 文明開化와 自主獨立, 윤리면에서의 新道德觀의 確立과 인습 및 미신타파, 그리고 교육면에서의 신교육사상과 제도 및 방법의 소개 등으로 新學問, 新教育運動은 교육 형식을 뚜렷이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근대적인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다<sup>11)</sup>.

이러한 개화의식은 여성의 복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상류층과 개화여성들의 양복착용으로 우리 복식은 韓服과 洋服의 二重構造를 이루게 되었다.

남성들의 복식이 정부 주도하에 官服, 軍服으로부터 垂直下向의으로 변화한데 비하여 이 시기 여성들의 복식변화는 自發의이며 서서히 이루어졌다. 당시 일반 부녀자들의 저고리는 더욱 짧아져서 길이는 20cm안팎으로서 가장 좁아진 1970년대의 깃보다 더 좁았었다. 깃은 당코깃으로 앞깃이 15~17cm이며 매우 바르게 되어있었는데 아마도 저고리 길이가 워낙 짧았으므로 길게 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고름은 넓고 길어져가고 있었다<sup>12)</sup>.

양가집 부녀자와 일반여성들은 대부분 韓服을 입었다. 다만 이들이 고수했던 韓服도 활동에 지장이 없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簡素化되었으며 서구문화와의 접촉이 갖은 계층, 近代式 教育을 받은 女學生들과 서양선교사들과 접촉하는 傳道婦人們의 服飾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sup>13)</sup>.

1920년대에는 일반적으로 저고리 길이가 22cm정도로 길어지고 화장, 진동, 배래, 수구 등이 더욱 넉넉해졌고 특히 배래선은 뚜렷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또한 고름도 넓고 길어졌으며 동정도 넓어졌다. 1940년대의 저고리 길이는 30cm정도로 넉넉해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고름의 길이가 길어졌고 고름대신 브로치가 이용되기도 하였다<sup>14)</sup>.

開化期 女性服飾의 최대의 변화는 활동하기에 편리한 겹은색의 짧은 통치마의 등장이다. 이 치마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新女性이나 傳道婦人, 女學生들이 즐겨 착용하였는데 2층으로 줄인 무릎까지 닿는 짧은치마로 주름을 넓게 잡아 입었다.

이화학당에 재직한 미스 월터와 미스 파이는 몇 겹씩 꽁꽁 가슴을 졸라매어 속바지, 고쟁이, 속치마를 겹쳐 입는 거추장스러운 한복을 어떻게 개량할 수 없을까하고 생각하다 오늘날 '어깨허리'라고 부

르는 모양을 고안해내어 치마허리의 개량도 이루어졌다<sup>15)</sup>.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시대의 遺風은 거의 사라지고 각 지방에서도 거의 없어지고 内外法 역시 점점 퇴색하였다. 저고리가 길고 화장은 짧으며, 통치마에 주름을 넓게 잡아 洋裝의 플리츠 스커트처럼 치마단까지 곧게 내려왔으며 단발머리에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당시의 전형적인 新女性의 모습이었다<sup>16)</sup>.

女學生들의 校服은 1920년대까지는 한복이 대부분이었으나, 1930년대에는 洋裝校服이 다시 등장하였다. 이는 다시 개화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제가 한복이었던 여학교 校服을 양장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때의 校服은 대체로 블라우스, 스웨터, 주름치마, 세일러복, 타이, 모자 등이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선 洋裝 校服을 새로 정했지만 進明과 梨花에선 계속 한복校服을 입었다<sup>17)</sup>.

開化期에는 일반여성들 뿐 아니라 긴 저고리에 짧은 치마를 입는 新女性들조차 몸의 곡선을 감추기 위해 속적삼, 단속곳, 바지, 속속곳, 다리속곳, 너른 바지 등의 속옷을 겹겹이 겹쳐 입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셔츠, 팬티 등 서양의 속옷들이 들어오자 한복 속옷은 차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속적삼은 셔츠로 대체되었고 속속곳과 다리속곳은 팬티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팬티 위에 단속곳, 바지를 입었으며 특히 짧은 통치마를 입는 新女性들은 바지, 단속곳 대신 사루마다라는 무명의 짧은 팬티를 입고 어깨허리의 속치마를 입었다. 속치마는 開化期에 생긴 속옷인데 치마보다 길이가 약간 짧았으며, 어깨허리로 되었고, 흰색의 인조견으로 만들어 입었다. 속치마는 속속곳, 다리속곳, 너른 바지를 대신할 수 있어 그 실용성 때문에 짧은 치마를 입는 新女性들 뿐 아니라 긴 치마를 입는 일반여성들에게도 널리 보급되었다<sup>18)</sup>.

본격적인 洋裝의 전성시대는 1930년대 이후로 일 반화되기 시작하였는데, 1934년 6월 16일에는 오늘 날의 패션쇼라 할 수 있는 국내최초의 女衣 감상회가 조선직업부인협회 주최로 인사동 태화관 안에 있는 종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여의 감상회는 유

행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인식이 부족한 당시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의복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감상회에서 보여진 여자의복으로 가정에서 입는 옷, 일할 때 입는 옷, 나들이 갈 때 입는 옷, 연회 때 입는 옷, 조상갈 때 입는 옷, 수영복, 운동복이었고 그밖에 한복을 개량한 옷도 있었다<sup>19)</sup>.

이렇듯 1930년대에 들어 유행의 속도도 빨라지고 복식도 다양해져 각 언론과 여성단체를 통한 강습 등은 여성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여성들의 유행에 대한 지나친 민감성은 사치와 지나친 유행의 추종이라는 결과를 낳아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의 洋裝은 그 품목이 다양해졌는데 특히 여성적인 실루엣의 의복이 유행하였고 스커트와 소매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다리와 팔의 노출도 늘어났다. 1930년대 말부터는 戰時體制下에서 다채로웠던 洋裝의 모습은 사라지고 簡單服이나 몸빼차림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유행과는 무관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의복이 착용되었다. 핸드백도 1930년을 전후해서 선보이기 시작하였고 솔과 파라솔이 유행되기도 하였다<sup>20)</sup>.

## 2) 解放後의 改良韓服부터 1990년대의 生活韓服 (1945-1999)

日帝 植民地에서 벗어난 解放以後 服飾文化는 커다란 轉換期를 맞게되는데 日帝下 彈壓과 窮乏의 殘存인 政治, 經濟의 混亂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그 이후 大韓民國의 政府豎立후의 親美的 사회분위기에 服飾의 西歐化가 촉진되면서 傳統服飾은 日常服에서 禮服으로 자리잡고 服飾의 西歐化는 계속 진행되었다<sup>21)</sup>.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韓服 착용자 수가 훨씬 많았으며 통치마 저고리의 改良韓服은 女大生이나 社會活動을 하는 女性들이 주로 입었다고 한다.

光復後 日本官의 歸國으로 生活用品 生產이 줄어들어 물자가 귀한 가운데 가장 혼란 것은 日本軍服이었다. 값이 싸고 질기기 때문에 男子들은 일본군복이나 國民服을, 여자들은 몸빼에 블라우스를 입었다<sup>22)</sup>. 사회가 안정되어가면서 양재강습회도 자주 개최되었고 밀리터리스타일(military style)이 지속적으로 유행하였는데, 일제 말 簡單服의 형태에서 크

개 벗어나지 않은 스타일의 원피스들로 선보였다. 남성복은 解放後 해외동포가 귀국하면서 여러 가지 양복스타일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인 스타일은 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여준 아이비스타일 (Ivy style)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양복은 도시 남성의 의생활 수단이었을 뿐 농촌에서는 아직도 한복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시대 또 하나의 특징은 군복조의 착장이었는데, 이것은 유행의 표현이라기보다 경제적 여건과 귀속된 조직의 개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sup>23)</sup>.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활질서와 사회질서가 파괴되었으며 50년대 말 정부의 新生活運動의 구조아래 재래의 衣食住 전체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新生活運動은 國產品을 愛用하여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外來品 배격과 허영심을 배격하자는 운동이었다<sup>24)</sup>.

그러나 여성복식의主流가 洋裝으로 넘어오기 시작하였고 1960년을 기점으로 韓服優勢傾向이 洋裝優勢傾向으로 변하게되어 한복이 일상복으로부터 차츰 멀어져 갔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남성들은 전쟁 후 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軍服風의 흐름이 대중을 이루어 군복을 변형하거나 簡易服 등으로 모두 군복이 갖는 裝備性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군복을 탈색하거나 염색하여 어두운 절망을 표현하였다. 정치인이나 사회 엘리트계층은 紳士服을 입고 있었으며 또 하나의 패션현상으로 海外救助品으로 들어온 衣類의 着裝을 들 수 있다<sup>26)</sup>.

1960년대에는 經濟開發의 시작과 함께高度成長을 기록하여 生活樣式의 變化가 加速化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7년의 纖維產業發達로 化學纖維가 나와 衣服革命을 이루하여 의생활문제도 거의 해결되었다.

近代的 技術導入를 통하여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고, 교통과 통신시설의 급속한 확장, 신문, 잡지, 라디오, TV등의 매스미디어 보급 증가, 인쇄매체의 폭발적 증가, 영화, 연극의 보급 및 음악, 미술, 문학 등의 大衆化로 문화의 大衆化 현상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大衆文化는 傳統文化의 大衆文化가 아닌 미디어와 함께 수용된 외래성 大衆文化이다.

이러한 문화 전반적 분위기는 복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하여 60년대 초반까지는 평상복으로서 韓服과 洋裝의 共存期를 거치면서 동시에 다양한 해외패션을 수용하는 기점으로 볼 수 있으며 61년 의복의 실용화를 통한 의생활 개혁을 위한 '新生活服'의 일환으로 改良韓服이 소개되었고 63년 한·일 친선 패션쇼에서는 이브닝드레스로 '아리랑 드레스'가 소개되었으나 한복의 본래의 美를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작품을 보면 韓國服飾을 現代化하는 초기 단계로서 약간의 형태변형과 소재와 문양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한복이 禮服化되고 洋裝이 우세한 복식문화적 영향이 커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남성복도 韓服混用이 희박해지고 농촌지역에서 조차 양복이 우세하였는데 다양한 복장과 구미의 첨단적 유행도 소개되었다<sup>28)</sup>.

1970년대에는 60년대에 이어 產業化와 都市化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매스미디어의 普遍化, 大衆化가 되었고, 아울러 서구의 과학기술 도입과 발달로 문화전파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纖維產業도 국가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발전하였으나 주체성 없는 한국패션이 한낱 모방의 영역을 뜯 벗어나 구미시장에서 커다란 난관에 부딪힌 나머지 '우수 디자인 개발'은 우리나라 패션산업의 당면과제로 클로즈업되었다<sup>29)</sup>.

이시기의 복식문화적 특징을 들자면 첫째, 기성복의 발달 둘째, 해외모드의 洋裝유행 셋째, 살롱시대<sup>30)</sup>로 많은 디자이너들이 배출되었다. 이때 앙드레김, 진태옥, 이신우, 미세스고, 트로아조, 강숙희의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傳統服飾을 現代화시킨 작품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는 해외모드의 洋裝이 크게 유행한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80년대로 접어들면서 양적인 생활항상으로부터 질적인 생활개선이 요구되면서 消費構造가 변화하였고 衣生活에 있어서 被服이 生活必需品이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個性化, 多樣化 속에서 품질과 디자인의 高級化를 요구하게 되었다<sup>31)</sup>.

더구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이후에는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고 한국패션이 모방이 아닌 독창적인 패션임을 정립하는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1983년부터 '대한민국 섬유패션디자인 경진대회'가

실시되었다. 이밖에도 國際化, 高級化, 個性化의 노력으로 1985년초 '한국하이패션협회'가 결성되었고 이 협회의 주관으로 1986년 초부터 '서울국제여성기성복박람회(SIFF)'가 개최되어 처음으로 종합적인 컬렉션이 열리게 되었다<sup>32)</sup>.

1980년대 우리나라 패션계의 특징이라면 문화적 전통에 대한 새로운 자각으로 한국적 전통을 주제로 한 디자인 발표와 세계 무대로의 진출을 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 歷史性과 地域性에 가치를 부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에 힘입어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확립하려는 자성적 노력이 활발히 진행<sup>33)</sup>되는 일들 중 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전통을 주제로 하여 디자인을 발표한 대표적 디자이너로는 이신우, 양드레김, 설윤형, 진태옥, 트로아조, 이영희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한복의 형태와 한국적 소재나 문양 등을 응용하여 민족적 정서를 개성적으로 표현하였다<sup>34)</sup>.

또한 이 시기부터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세계패션에 민속풍(Ethnic)의 유행이 대두되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적 가치관을 내포한 한복도 기능적, 형태적 측면에서의 '개량' 차원을 넘어선 감성적 디자인으로 現代化, 大衆化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生活韓服'이라는 범주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는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產業社會에서 情報社會로 가며 國際化 또는 世界化되는 새로운 21세기로 이행되는 시기였으며, 문화적으로는 정치나 경제의 영역에서 계층간의 위계와 경계가 무너지고 수평적 관계의 대중으로 이루어진 사회구조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영역에서도 진리나 美를 추구하는 古典的인 價値體系 대신 多樣性과 可變性이 수용되며 각 영역의 독자성을 수호하기보다는 상호교류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sup>35)</sup>.

또한 1980년대에 이은 민속풍(Ethnic) 디자인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傳統'을 주제로 한 디자이너들의 作品이 예전의 '보여주기 위한 옷'에서 실제로 착용 가능한 '대중적인 옷'으로서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따라 生活韓服도 어엿한 패션의 한 분야로 정착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한국적 전통을 내포한 디자인들은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生活韓服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이나, Ⅱ장 생활한복의 개념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양장에 근접한 광의의 生活韓服의 한 부분으로 보는 관점에서 포함시켰다.

### III. 1998년 이후의 生活韓服 業界의 現況

正統性만을 고집하던 傳統韓服 業體에서도 세태의 변화를 받아들여 傳統韓服과 生活韓服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데 이렇듯 生活韓服이 활성화 된 지금 生活韓服 업계의 현황과 디자인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본 장에서는 生活韓服이 1980년대 중반 대중화 된 이후 업계의 市場規模와 類型, 販賣實態 및 消費實態에 관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고 1999년 生活韓服의 디자인의 전반적 현황을 직접 인터뷰한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生活韓服 업계의 市場規模 및 商圈, 市場 유형

지난 1980년대를 전후로 활성화된 生活韓服시장이 1999년 현재 2백여 中小 生活韓服 전문업체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生活韓服이 傳統 韓服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면서 소자본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校服이나 공무원 근무복 및 단체복용으로도 적극 착용되는 추세로 '여럿이 함께', 코오롱상사의 '한마음', '돌실나이', '나들잇벌', '길쌈', 쌍방울의 '예나지나', '달맞이' 등의 업체가 무한시장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sup>36)</sup>.

앞으로의 시장전망을 살펴보면 生活韓服 참여업체 대부분이 앞으로의 시장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12월 文化觀光部의 '한복입는 날 선포2주년기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生活韓服 제작업체 현황<sup>37)</sup>에 따르면 86.4%의 기업이 生活韓服시장에 대해 좋아질 것

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관적 입장에 있었던 업체는 4.4%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生活韓服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기타 의류부문에 비해 성장 가능 요인이 많음을 인정하는 면이기도 하다.

서울소재 生活韓服 제작업체의 상권을 살펴보면 주로 재래시장 상권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生活韓服 구입 시 전통한복을 구매하던 습관 그대로 재래시장을 선호하는 실태를 나타내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生活韓服 전문취급점을 특이하게도 대학로 성균관대 일대와 종로 인사동 일대의 상권에 많이 소재하고 있었는데 이는 生活韓服專門店의 대부분이 이들 문화의 거리를 중심분거리로 출발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매장의 형태에 있어 단독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가 전체의 70%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매장의 수에 있어서도 매장을 한 개만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매장 면적도 20평 미만의 소형매장이 대부분이었으며 월평균 매출액도 500만원이하인 경우가 4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生活韓服製作業體의 규모가 중소업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영세한 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sup>3)</sup>.

## 2. 生活韓服 着用者의 所有 및 着用實態

앞에서 生活韓服 제작업체의 市場規模 및 商圈, 매장유형들을 살펴보았고, 이어 生活韓服 착용자의 소비실태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선형, 정인희, 강순제의 한국도시여성의 한복 착용 및 구매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生活韓服 소유여부 혹은 착용경험에 대한 질문에, 1996년의 연구결과에서는 85.6%가, 1998년의 연구결과에서는 77.7%가 生活韓服을 한 벌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착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두 경우 모두 生活韓服의 보급이 아직은 한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혼 여부는 生活韓服 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쳐,

既婚은 평균 0.32벌, 未婚은 평균 0.06벌의 소유 벌수를 응답하는 등, 既婚이 未婚에 비해 착용경험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sup>39)40)</sup>.

김선경, 조효숙, 정인희의 生活韓服 착용경험자들의 소비실태 및 의식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자 개인별 최소 1벌에서 최대 20벌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며, 374명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生活韓服은 811벌이어서 1인당 평균 2.17벌의 生活韓服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별 응답대상자 분포를 살펴보면 1벌의 소유자가 가장 많아 191명(51.1%)이었으며 2벌이상 소유자는 183명(48.9%)이었다.

계절별 生活韓服 소유현황은 봄·가을용으로 가장 많이 있었는데 이는 겨울에는 덧입을 옷을 함께 갖추어야 하고, 여름용으로 입기에는 피복면적(被服面積)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41)</sup>.

앞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生活韓服을 착용해온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0년까지로 응답하였으며, 착용 평균기간은 2년 4개월로 나타났다.

生活韓服을 처음 착용하게 된 동기는 '편하고 실용적일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개성 있는 자기연출을 위한 한 방법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기능성에 부가하여 전통적 미를 개성있게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에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sup>42)</sup>.

生活韓服의 평균 착용빈도를 보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 착용하거나 한 달에 한번 이상 착용하는 사람이 59.3%에 해당하며 응답자들의 70%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착용하는 사람은 11%에 달한다.

평균착용빈도는 결혼여부와 소유벌 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더 자주 착용하며, 2벌이상 소유자가 1벌 소유자보다 더 자주 착용하였다<sup>43)</sup>.

또한 生活韓服의 착용용도별 빈도를 살펴보면 100명 기준으로 환산해 볼 때 100명중 41명은 평상복으로 生活韓服을 착용하고 있으며, 29명은 직장이나 학교갈 때, 56명은 간단한 외출 시에, 29명은 단체활동 시에, 31명은 결혼식이나 잔치 참가 시에, 33

명은 명절이나 예식에, 10명은 제사 때 입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응답자들은 단단한 외출 시에 生活韓服을 가장 즐겨 착용하며 집에서 평상복으로 입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고객으로부터의 불만사항은 '디자인이 단순하고 규격화 되어있다.'가 46.2%로 가장 불만스러운 요인으로 집계 되었고 다음으로는 '색상', '소재', '사이즈', '재봉상태' 순으로 나타났다.<sup>44)</sup>

### 3. 生活韓服 디자인 現況調査

이제까지의 生活韓服 업계의 販賣實態와 着用者の 消費實態들을先行研究들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고객들이 디자인에 가장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生活韓服 디자인의 現況調査를 위해서 1999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서울소재 生活韓服 專門賣場 및 업체를 60곳을 선정하여 기초조사 형식으로 업체의 디자인 실장 및 매장의 솔 마스터를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조사대상지역은 매장방문의 경우는 서울시내에 生活韓服 專門店들이 밀집한 대학로 성균관대 일대, 인사동지역, 강남지역들 중에서 '專門店'들로만 편의 모집하여 조사하였고 업체의 디자인실은 본사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生活韓服 업체들의 주요 판매대상 연령층과 그를 통한 성인복과 아동복의 판매 비율을 알아보자 한다. 둘째, 평상복과 예복의 판매비율 및 가격 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디자인에 있어서는 현재 기획, 생산된 生活韓服 제품들이 서양복 장구성요소들인 선, 실루엣, 디테일, 트리밍, 소재, 문양, 색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타나는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넷째, 生活韓服 제품들의 코디네이션 상품의 내용 및 고객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 1) 生活韓服 업체의 주요 標的顧客 연령층 및 아동복 비율

生活韓服 업계의 주요 標的顧客 연령층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그 세부내

용을 살펴보면 전체 업체 중 71.5%의 업체들이 標的顧客層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하고 '모든 연령층'을 標的顧客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13세 이하의 아동들만을 주요고객으로 하는 전문점의 비율도 3.5%에 지나지 않았다. 모든 연령층을 標的顧客으로 하는 업체 중에서도 주요 판매 대상을 30대에서 50대로 정한 업체가 30곳(69%)으로 나타나 標的顧客別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1> 生活韓服 주요 標的顧客 연령층

표적고객 연령층	업체수	비율(%)
13세이하 아동	2	3.5
30대-50대	15	25
모든연령층	43	71.5
계	60	100

조사 업체의 성인복 대 아동복의 판매비율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성인복과 아동복의 판매비율

성인복: 아동복	업체수	비율(%)
0:100	1	1.8
50:50	4	6.6
70:30	45	75
100:0	10	16.6
계	60	100

조사업체중 성인복 전문이거나 성인복 판매가 70%이상인 업체가 55곳으로 대부분 성인복에 치중하고 있어 아동복이나 영(young)층의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生活韓服의 용도(평상복 또는 예복) 및 가격대 판매되는 생활한복의 용도에 관하여 조사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평상복과 예복의 판매비율

평상복: 예복	업체수	비율(%)
100:0	30	50
70:30	19	31.6
50:50	5	8.4
30:70	6	10
계	60	100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00% 평상복만을 판매하는 곳이 30곳으로 전체의 50%이며, 전체 판매의 70% 이상이 평상복인 업체는 49곳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였다. 그에 비해 평상복과 예복의 비율이 50:50인 곳은 5곳으로 8.3%, 예복만을 판매하는 곳은 6곳으로 10%에 불과해 대부분 평상복 판매에 치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한복의 가격 대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생활한복의 가격대 (성인복 1벌 기준)

가격대	업체수	비율(%)
10만원이하	10	16.7
10~20만원대	38	63.3
30만원이상	12	20
계	60	100

生活韓服 전문매장의 경우 성인복 기준(저고리, 바지 혹은 치마 1벌)으로 10~20만원대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38곳(63.3%)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20만원 대 이하가 3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30만원이상 제품의 경우에는 12곳(20%)으로 대부분 맞춤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으며, 조사 결과 대부분 중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生活韓服의 디자인 조사

#### (1) 선(line)과 실루엣(silhouette)

생활한복 업체의 디자인 중 선과 실루엣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선과 실루엣에서 다크나 프린세스라인 등을 사용하지만 한복에 가까운 전통의 선을 고수하는지 양장에 가까운 다양한 실루엣을 지향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업체 중 50곳(83.3%)이 전통 한복선을 고수하면서 양장의 다크나 프린세스라인 등을 사용하거나 바지의 간소화 등만을 채택하여 디자인의 변화를 주고 있으나 10개의 업체(16.7%)에서는 양장의 다양한 실루엣과 선을 선보여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표 5>, 10개의 업체 모두가 30만원대 이상의 고가브랜드였다.

<표 5> 선과 실루엣

실루엣	업체수	비율(%)
전통의 실루엣유지	50	83.3
다양한 실루엣 활용	10	16.7
계	60	100

#### (2) 디테일과 트리밍

디테일에 있어서 칼라, 목선 등은 전통적 '깃'을 이용하지만 포켓 등은 실용적 디자인으로 변형하고 편티과 파이핑 처리 등을 이용한다고 답한 곳이 조사대상 60곳업체 중에서 50곳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10곳(15%)에서는 디테일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현대적 디자인을 시도한다고 답하였다. 트리밍에 있어서는 60곳 전체(100%) 모두 자수나 매듭 등으로 트리밍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3) 소재의 사용범위

조사 업체 중 100% 천연섬유만을 사용하는 업체는 10곳(16.5%)이었으며, 천연섬유와 합성섬유를 고루 사용하는 곳이 40곳(67%)으로 가장 많았고, 혼방섬유와 합성섬유만을 사용하는 곳도 10곳(16.5%)으로 나타났다. <표 6>

사용소재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춘추용의 주요사용소재를 살펴보면 면, 혼방, 견, 합성섬유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름용은 마, 모시, 면, 레이온의 순이었다. 겨울용은 견, 혼방, 모, 합성섬유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소재를 가격대와 비교하여 보면 30만원 이상의 고가대에서 뿐만 아니라 중가업체에서도 가격대에 비하여 고급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소재의 종류

소재의 종류	업체수	비율(%)
100% 천연섬유	10	16.5
천연섬유+합성섬유	40	67
합성섬유+혼방섬유	10	16.5
계	60	100

#### (4) 주요 사용 문양

조사업체의 주요 사용 문양을 살펴보면 傳統的紋樣(25곳), 自然的紋樣(22곳), 幾何學的紋樣(5곳),

抽象的紋樣(1곳)등의 순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紋樣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도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문양 중에서도 글자, 와당, 떡살, 단청 등의 순서로 자주 이용되었고 自然紋樣중에서는 花, 나비, 과도, 사군자, 봉황, 과일의 순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幾何學的 紋樣을 주요 紋樣으로 하는 업체가 5곳, 추상적으로 現代化시킨 紋樣을 사용하는 곳도 1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대와 비교해볼 때, 50만원 이상의 초고가 업체에서는 문양 없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주요 사용 색상

색상의 경우 연령별, 계절별, 성별 차이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연령별로 볼 때 성인복의 경우에는 자연색(36곳), 무채색계열(8곳), 유행색(10곳), 화려한색(6곳)의 순서로 사용되고 있었고 아동복의 경우에는 원색(25곳), 파스텔톤(15곳), 자연색(10곳)의 순으로 선호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에 있어서는 연령별보다 계절별 구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춘추용으로는 파스텔과 자연색 계열 (브라운, 베이지, 카키)들을 많아 사용하고 있고 여름용으로는 흰색, 감색 등의 寒色系列, 겨울용으로는 검정과 자주 등의 짙은색, 붉은 톤의 暖色系列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 성인에 경우에 있어서도 남녀의 색상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계절별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색의 사용 경우 명도나 채도대비가 큰 색상 사용이 많았다.

#### 4) 生活韓服의 코디네이션 제품

조사대상 업체에서 취급하는 코디네이션 제품의 종류로는 머플러, 가방, 신발, 손수건, 방석등과 놀이개, 조바위, 복건, 전대 등의 악세서리 제품 등이 있었다. 조사 업체 중 49곳(81.6%)이 코디네이션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고 11곳(18.4%)이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코디제품 중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가방과 신발이었는데 그 이유는 양장에서 사용하는 것들과는 코디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7> 生活韓服업체의 코디네이션 제품 취급 여부

코디네이션 제품취급여부	업체수	비율(%)
코디제품이 있다.	49	81.6
코디제품이 없다.	11	18.4
계	60	100

#### 5) 고객의 의견

조사 업체에서 고객이 응답한 고객 의견을 정리하여 보았는데 <표 8>, 고객의 의견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개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고급화(27곳: 45%)였고, 그 다음으로는 합리적 가격과 정기적 세일을 원하고 있었다.( 16곳: 26.6%) 응답 업체 중 11곳, 18.3%가 현재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체형보완 및 사이즈개발을 원하는 고객들이 5곳 8.3%이었다. 체형보완의 내용 중에는 '날씬해 보이도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기타 고객의 의견으로는 바느질을 보완과 맞춤기간의 단축 등이 있었다.

<표 8> 고객의 의견 내용

고객의 의견	업체수	비율(%)
개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고급화	27	45
체형보완 및 사이즈 개발	5	8.3
합리적 가격과 정기적 세일	16	26.6
천저한 A/S제도(염색등)	1	1.8
대체로 만족	11	18.3
계	60	100

## V.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1999년 生活韓服 디자인의 현황파악과 고급화 방안을 선행 연구와 1999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달 간 生活韓服 전문 브랜드 60곳의 탐방을 통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고찰하여 보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生活韓服 디자인의 현황과 고급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업체 60곳 중 71.5%(43곳)가 標的顧客層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하고 '모든 연령층'을 標的顧客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13세 이하의 아동들만을 고객으로 하는 전문점의 비율이 3.5%에 지나지

않았다. '모든 연령층'을 標的顧客으로 하는 업체 중에서도 주요 판매 대상을 30대에서 50대로 정한 업체가 69%로 나타나 標的顧客別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표 1, 2참고〉

고급화 방안으로는 브랜드를 標的顧客層 세분화 및 전문화시켜 아동층이나 젊은층, 장년층, 노년층의 상품 개발에 투자할 수 있어야 브랜드별 차별화와 함께 고급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바이다.

둘째, 조사업체들의 평상복과 예복의 판매비율을 살펴보면 100% 평상복만을 취급하는 업체가 전체의 50%이었고, 50:50인 곳은 8.3%, 예복만을 판매하는 곳은 10%에 불과해 대부분 평상복 판매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격대에 있어서도 성인복을 기준으로 10-20만원대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63.3%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20만원대 이하가 30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3, 4참조〉

고급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평상복과 더불어 예복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평상복이라 하더라도 소재를 고급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격면에서도 중저가의 상품뿐 아니라 고가의 고부가 상품의 개발도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셋째, 생활한복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조사 업체의 83.3%가 전통 한복선을 고수하면서 양장의 다크나 프린세스 라인들은 사용하거나 바지의 간소화 등만을 채택하여 디자인의 변화를 주고 있으나 15%에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양장의 다양한 실루엣과 선을 선보여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디테일에 있어서도 칼라, 목선 등은 전통적 '깃'을 이용하고 포켓 등은 현대성을 많이 가미한 실용적 디자인으로 변형한다고 전체의 83.3%(50곳)가 응답하였다. 트리밍에 있어서는 100%(60곳)가 매듭이나 자수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 참고〉

디자인과 가격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인복 기준 1벌 당 30만원이상의 중고가의 가격대에서는 12곳의 업체 중 10곳이 현대성을 많이 가미한 다양한 실루엣을 활용하고 있었고 2곳만이 전통의 선을 고수하면서 디자인에 많은 변화가 없는 단아한 선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디자인에 양장의 현대성을 많이 가미한 업체 중 10곳의 디자인 특징은 현재의 패션 경향의 하나인 단순화 경향을 많이 띠고 있어 소재나 색상으로만 차별화를 두고 있었다.

소재에 있어서는 83.5%의 업체가 천연섬유를 합성섬유, 혼방섬유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16.5%가 합성섬유와 혼방섬유만을 사용하고 있어 천연섬유 등의 고급소재 사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용소재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춘추용은 면, 혼방, 견, 합성섬유의 순으로 나타났고 하계절용은 마, 모시, 면, 레이온의 순이었다. 동절기용은 견, 혼방, 모, 합성섬유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용문양을 살펴보면 전통적 문양(25곳)과 자연적 문양(22곳)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하학적 문양, 추상적 문양의 순이었고 문양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도 7곳이나 되었는데 특히 가격대와 비교해 볼 때 50만원이상의 고가업체에서는 문양없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의 경우는 연령별보다 계절별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춘추용으로는 브라운, 베이지, 카키 등의 자연계열들이 주로 사용되었고 하계절용으로는 흰색, 감색 등의 한색과 무채색계열이, 동절기용으로는 검정과 자주 등의 난색과 무채색계열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生活韓服의 디자인에 있어서의 고급화 방안은 디자인 뿐 아니라 소재나 색상, 문양 등과 함께 고려되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고객의 의견을 참고로 정리하여 보면, 디테일이 복잡하지 않고 고급의 천연소재를 사용하며 전통성과 현대성을 무리하지 않게 연결하면서 일상복으로 뿐만 아니라 예복으로서의 활용도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표 5, 6참고〉

넷째, 生活韓服의 코디네이션 상품 취급여부 및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업체 중 81.6%가 코디네이션 상품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은 가방과 신발이었는데 그 이유는 양장에서 사용하는 기존 코디네이션 제품과는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표 7참고〉, 生活韓服의 고급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코디네이션 상품의 기획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에서 나타난 고객의 의견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이 개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고급화(27곳: 45%)였고 그 다음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정기적인 세일로 경제적 측면을 들고 있었다. 응답업체 중 18.3%가 현재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체형 보완 및 사이즈 개발을 원하는 고객도 8.3%되고 있었다. 체형보완의 구체적 내용은 '넓씬해 보이도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生活韓服을 현대 서양복식 디자인 요소와의 관련성 면에서 고찰해 보았는데 이 연구가 生活韓服 디자인 고급화에 ---助가 되었으면 하며, 디자인에 있어서 좀 더 연령계층적으로 細分化된 深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및 미주

### ◎단행본

- 고복남, 한국 의복의 유형과 양식, 집문당, 1987
- 금기숙, 조선의 복식미술, 열화당, 서울, 1994
- 김진식, 한국 양복 100년사, 미리내, 1990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서울, 1991
- 김원룡 (1978) 한국미의 탐구, 열화당
- 김영숙, 한국복식사 사전, 민문당, 1988
- 김영자, 한복의 미적 고찰, 한국의 복식, 한국 문화재 보호 협회, 1982
-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서울, 1992
- 박영철, 한국 양복 변천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학도호국단 문예부, 1977
-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3
- 사진으로 보는 근대 한국 산하와 풍물, 서문당, 1986
-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속 생활과 풍속, 서문당, 1987
- 서지민, 한국 복식 문양미, 일지사, 1982
- 손경자, 개화기의 여복, 한국의 복식, 한국 문화재보호 협회, 1982
- 신생활 100년, 한국현대사7, 신구문화사, 1974
- 우리옷 출판국편, 아름다운 우리옷, 도서출판 율촌, 1989
- 유송옥, 의복, 서울 6백년사IV, 서울시사편찬위원회, 1981
-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 유송옥, 개화기 서양복식유입의 충격과 수용, 전통문화와 서양문화,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1987

- 유수경, 한국 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1991
- 유희경, 한국 여성복식의 연구, 한국여성사, 전II, 이대 출판부, 1972
- 이경자, 해방 36년의 복식변천, 한국의 복식, 한국 문화재보호협회, 1982
-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81
- 정순목, 유럽과 개화 교육의식의 각성, 전통문화와 서양문화, 성균관 대학교출판부
-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일지사, 1989
- 최경자, 패션 50년, 의상사, 1981
- 한복개량의 방향, 여원, 1961
- 현대사회연구소편, 2000년대를 향한 한국인상, 현대사회연구소 발행, 1982

### ◎논문

- 강 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의복 연구, 서울의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 가정학회지38, 1979
- 강경희, 한국복식형태의 현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전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혜경, 한복의 디자인 연구, 이대 산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권성자, 한국복식의 변천에 관한고찰(1901~1945), 관동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3
- 권혜영, 한국 여성 양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 금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대 박사학위 논문, 1988
- 금기숙, 조선 복식미의 탐구, 복식학회지, 14호 1990
- 김경희, 조효순, 한국 개화기 여성복식의 변천요인, 복식32호, 1997
- 김분남, 의생활 합리화를 위한 한복의 개선, 대한 가정학회지3호, 1965
- 김민자, 한국패션의 고유 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산업디자인110, Vol.21, 1990
- 김민자, 임원자, 이은영, 구미자, 김윤희, 한국 복식변천과 사회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17권2호, 1993
- 김미자, 개화기의 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 김수정, 1950년 이후 한국변천의 변천과 그 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선경, 조효숙, 정인희, 생활한복 착용경험자들의 소비 실태 및 의식연구(1), 한복문화 제2권
- 김연선, 광복이후의 여자한복 변천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1992
- 김영자, 한국 복식미의 연구- 예의관과 표현미를 중심으로-세종대 박사학위 논문, 1990

- 김윤주, 전통누비를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 김윤희, 20세기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김인경, 현대복식조형의 한국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이대 장미과 석사논문, 1989
- 남윤숙, 한국여성 복식여성 복식제도의 변천과정의 연구, 복식학회지14호
- 남윤숙, 한국현대여성 복식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복식 22호, 1994
- 남윤숙, 한국 여학생복식 변천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일 합방기 중심) 수도여사대
- 박은희, 근대복식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14권, 4호, 1976
- 박찬부, 우리나라 개화기 이후 복식에 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일고, 가정대학 논문집 제3집, 인하대학교, 1986
- 박찬부, 한국 현대복식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2
- 서명자, 현대한복에 대한 연구-여자 한복을 중심으로, 홍대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5
- 심화진, 여대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 및 착용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생 활문화연구7, 1993
- 신영숙, 일제하 한국여성 사회사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 안명숙, 김은정, 양수향, 현대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복식 39호, 1988
- 원영옥, 우리나라 양장의 변천, 국민대학 논문집, 1972
- 유수경,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논문, 1988
- 유영경, 한국여성양장변천에 관한 연구, 이대 대학원, 1989
- 이선영, 한복의 현황 및 예술화의 전망, 효성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9
- 이명희, 근대 한국복식의 변화 요인, 복식 5호, 1981
- 이승희, 개화기 복식의 변천과 요인, 이화여자 대학교

- 석사학위 논문, 1984
- 이미혜, 현대 여성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한국 전통 복식 요소,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 이태옥, 한복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남성 일상복을 중심으로, 1993
- 정충량, 독립신문이 개화기 여성의 교육계발진흥 및 사회 참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론집25, 이화여대, 1975
- 진미희, 한복 변천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15호, 1990
- 진윤희, 전통성을 응용한 복식디자인의 연구- 전통 건축의 조형성을 중심으로, 이대석사 학위 논문, 1990
- 천종숙, 생활한복 디자인 설계에 관한 사례연구, 연세대 생활과학논집 12, 1998
- 최경자, 의생활의 과거, 현재, 미래, 대한가정학회지 3호, 1965
- 최명인, 한국 개화기의 여성교육문제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연구론6집
- 최선형, 정인희, 강순재, 한국 도시여성의 한복 착용 및 구매 실태, 복식 37호, 33-46쪽
- 최숙향, 정세향, 개화기한국여성의 근대의식의 형성, 한국문화연구론집, 1976
- 최세완,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2
- 현용순, 한국 디자인의 전통계승 방법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홍나영, 한복개량운동에 관한 고찰, 한국 복식학회지, 15호, 1990

### ◎ 잡지

- 월간 우리옷 사랑, 창간호, 1995. 5
- TEX JOURNAL, 1995. 5
- 조선일보, 1934. 6. 30
- 월간의상, 1980. 12

### ◎ 조사업체

(주) 옥빛나래 (654-6114)	새시리 (753-0066)	질경이 (744-5603)	돌실나이 (745-7458)	합진아비 (903-6006)	까치호랑이 (743-8934)
씨실과 날실 (주) 새영세계 (775-1251)	우리들의 벗 (주) 동아모드 (3929-114)	달맞이(주) 천지인상사 (548-7740)	고구려 생활한복 (591-4955)	시실리 (時失里) (3445-1266)	이지은한국옷 우리옷 참한사람
자연의 벗 (736-2901)	한울이영희 (547-0638)	한울타리 (3143-0507)	우리미 (3142-8277)	길쌈질 (2254-4114)	늘사랑 (325-6651)
예나지나	세발까마귀	아라가야	새내공방	마삭	여럿이함께
용비어천가 (765-5255)	나들잇벌 (243-3411)	오유정우리옷 (243-6531)	가람 (856-0769)	강강술래 (723-3937)	설중매 (3672-4617)
온고지신 (925-0426)	당초문 (543-1993)	셋풀라이 (766-3248)	베틀가 (722-7250)	베틀코리아 (235-8586)	보둠삼방 (868-7141)

우리마을 (3445-1266)	봄데강 (551-6055)	브 앤 풍상 (374-5928)	사군자 (3142-9074)	산과들 (906-6318)	삼매야 (333-2009)
술바당 (931-6812)	온누리에 (596-3451)	성미개·양한복 (245-8790)	새시리 (2233-0044)	푸른술 (969-7771_)	신도불이 (375-3653)
신흥어페럴 (308-1861)	아사달 (461-8591)	연초록·진초록 (016-241-0052)	예백 (737-0804)	옥빛나래 (654-6114)	웃누리 (523-7502)
늘우리옷 (518-2981)	연지곤지 (3443-2020)	연지우리옷 (499-0735)	모둠상방	한맥	마리수코리아

- 1) 안명숙·김은정·양숙향, 현대 생활한복 형성의 배경과 방향, 복식39호, 1998.
- 2) 김선경·조효수·정인희, 생활한복 착용경험자들의 소비실태 및 의식 연구(1), 한복문화 제2권 1호, 1999.
- 3) 조효숙·김선경·이희승, 생활한복의 구매실태연구, 한복문화1(2), 1998.
- 4)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338-339쪽.
- 5) 앞의 글, p.341.
- 6) 앞의 글, p.344.
- 7) 앞의 글, p.345.
- 8)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81, 350쪽.
- 9) 권혜영, 한국여성양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4쪽.
- 10) 유희경, 한국여성복식의 연구, 한국여성사 전Ⅱ, 이대 출판부, 246쪽.
- 11) 권성자, 한국복식변천에 관한 고찰, 관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3, 6쪽.
- 12)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1990, 131쪽.
- 13) 유희경, 한국여성복식의 연구, 한국여성사Ⅱ, 이대출판부, 1972, 651쪽.
- 14)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362쪽.
- 15)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1990, 153쪽.
- 16) 유수경, 앞의 글, 204쪽.
- 17) 유수경, 앞의 글, 209쪽.
- 18) 유송옥, 의복, 서울600년사IV의복, 서울특별시사편찬회, 1981, 1221-1222쪽.
- 19) 조선일보, 1934년 6월 16일.
- 20) 유수경, 앞의 글, 249쪽.
- 21) 강경희, 한국복식형태의 현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유수경, 앞의 글, 251쪽.
- 23) 김진식, 한국양복100년사, 미리내, 1990.
- 24) 진미희, 한복변천에 관한 연구-1950년대 이후 여자한복 중심으로-, 복식15호, 1990.
- 25) 강경희, 앞의 글, 31쪽.
- 26) 김진식, 앞의 글, 156쪽.
- 27) 박찬부, 한국현대복식 문화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92, 12쪽.
- 28) 김진식, 앞의 글, 175쪽.
- 29) 월간의상, 1980년 12월, 21쪽.
- 30) 김수정, 1950년이후 한국패션의 변천과 그 양식, 이대석사학위논문, 1988, 50쪽.
- 31) 진미희, 앞의 글, 150쪽.
- 32) 김수정, 앞의 글, 62쪽.
- 33) 김민자, 한국패션의 고유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산업디자인110, vol.21, 1990, 25쪽.
- 34) 강경희, 앞의 글, 44쪽.
- 35) 유송옥·이은영·황선진, 복식문화, 교문사, 1998, 241쪽.
- 36) 섬유저널, 1999년 5월, 274쪽.
- 37) 이상은·조효순, 생활한복 제작업체의 현황, 1998.
- 38) 앞의 글, 37쪽.
- 39) 최선형·정인희·강순제, 한국도시여성의 한복착용 및 구매실태, 복식37호, 33-46쪽, 1998.
- 40) 조효숙·김선경·이희승, 생활한복의 구매실태연구, 한복문화1(2), 67-81쪽, 1998.
- 41) 김선경·조효숙·정인희, 생활한복 착용경험자들의 소비실태 및 의식연구(!), 한복문화 제2권1호, 한복문화협회, 1994, 125쪽.
- 42) 앞의 글, 127쪽.
- 43) 앞의 글, 128쪽.